

2022 OPEN! 16.

체념의 순간에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기적을 만든다.

[열왕기상 17:12, 16] 12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16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

1. 사르밧 과부

[열왕기상 17:12]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1) 빈궁의 상태 - 절대적인 가난과 궁핍함에 있는 상태이다.

(2) 체념의 상태 -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체념은 희망을 버리고 단념하는 것을 말한다.

(3) 과부 - 과부라는 것은 그 당시 절대적 약자의 상태를 말한다. 보호를 받을 수 없다(보호자가 없다). 아들 하나까지 두고 있다.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의 여인을 말한다.

2. 사르밧 과부가 돕다.

하나님은 이런 절대적 위기에 처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섬김을 받도록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마실 물을 한 그릇을 달라고 청한다. 체념의 상황에 처한 여인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청하는 엘리야를 보고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속으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네. 이 사람은 뭐야?”라는 질문이 있었을 것이다.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물을 가지러 간다. 그때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 말한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절) 이 얼마나 황당한 요청인가? 질문을 하는 엘리야도 자기가 한 질문에 민망했을 것이다. (잘못하면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런 나에게 물과 음식을 달라고 하는 너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라는 핀잔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다.

12절에 보니 여인은 엘리야에게 자신의 처지를 말한다. “나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 있을 뿐입니다. 보다시피 저는 지금 딸감을 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나 귀찮게 하지 마시오. 내 상태는 바로 죽기 직전의 체념 상태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다. 이런 대답을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 미안하다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났을 것이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대답을 듣고도 당당하게 여인에게 음식을 해오라고 말한다. 어떻게 엘리야는 체념 직전의 여인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엘리야는 이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14절)

[열왕기상 17:13-14] 13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나 여호와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

사르밧 과부의 상태는 체념의 상태이고,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는 엘리야 역시 두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상황을 보라. 한 여인의 체념과 한 남자의 두려움을 한자리에 두신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작은 일들을 하게 하신다. 공통점은 여인과 엘리야 모두 작은 순종을 했다. 그런데 그 작은 순종이 기적의 문을 열었다. 그들이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큰일을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체념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아주 작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셨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체념 상태에 있을 때 더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인과 엘리야의 상황을 보라.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소망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전까지 가뭄의 문제는 해결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념의 상황이 되면 오히려 할 수 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체념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있다. 오히려 그 작은 일들은 내가 체념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여인도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에 작은 순종을 한 것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축복하신다. (그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4. 내가 부은 작은 순종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적의 순간을 만든다.

[열왕기상 17:17-18] 17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18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인에게 체념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와 같은 아들이 죽는다. 여인의 절망의 화살이 엘리야에게 향한다. 이 여인의 마음 안에 아들이 죽은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여기고 있는 것 같다. 항상 아들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내 아들이 나에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굶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을 텐데'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 엘리야가 아들을 살리다.

[열왕기상 17:19-23] 19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21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23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위 말씀을 보라. 과부의 죽은 아들을 안고 엘리야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인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20절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고백에 엘리야의 속마음을 볼 수 있다. "하나님 순종해서 과부 여인에게 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체념의 상황에 처한 여인에게 먹을 것을 대접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공급을 경험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엘리야는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왜? Why?'의 질문을 한다. 왜? 라는 질문은 방법에 대한 질문이 아니다. 원인과 본질에 대한 질문이다. 근본에 대한 질문이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간청한다.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다시 하나님께 간청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

5. 체념과 두려움이 만나 기적을 만든다.

[열왕기상 17:24]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인의 입에서 엘리야를 향한 중심의 고백이 나온다. 체념 가운데 있었던 여인,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 모두에게 돌파가 되는 고백이었다.

(1)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야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체념 상태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한다. 결국, 내 전부와 같았던 아들의 하나님을 나는 찾았습니다. 라는 고백이다. 체념 가운데 멈추지 않았던 여인의 작은 행동은, 결국 자신과 아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했다. 내면의 절대적 절망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2)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인의 고백을 통해 엘리야 안에 있었던 두려움을 떠나게 되었을 것이다.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대전투 앞에서 내가 담대할 수 있겠다. 나는 싸울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체념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 상황 가운데 했던 나의 작은 행동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위해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다.